

전염병 보도 프레임 연구*

박건숙
(상명대학교)

<Abstract>

Park, Keon-Sook. 2016. A Study on the News Frame of Epidemic Diseases. *Korean Semantics*, 5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ectious disease news, further to establish a frame of epidemic diseases news through the analysis of vocabulary epidemic and related words. To this end, We have analyzed the vocabulary of KBS 9 o'clock News statistically from 2001 to 2015. And studied around the swine flu {*Sinjongpeullu*} and MERS {*Mereuseu*}.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injongpeullu/Mereuseu*} new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appearance aspects related terms as compared to the cancer {*Am*} or the flu {*Dokgam*}. Second, we present three frames in the {*Sinjongpeullu/Mereuseu*} news: the control frame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national disaster frame emphasized the risk of epidemics frame, economic crisis frame is focused on the impact the epidemic on the economy. Third, the political and economic areas related term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MERS news than swine flu news. This shows that intervention of governmental agencies is even greater in the MERS time than the swine flu. Also it means that the more important to recognize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infectious diseases than in the past. The study presents what the focus of the news when an epidemic occurs, the revealed target to recognize what our society is important.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4504)

핵심어: 프레임 (frame), 전염병 (epidemic diseases), 주제어 (thematic word), 어휘 결합 관계 (lexical syntagmatic relation), 관련어 (related words), 통제 프레임 (control frame), 재난 프레임 (disaster frame), 경제위기 프레임 (economic crisis frame)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KBS 9시 뉴스 자료를 바탕으로 전염병 보도에 나타난 어휘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전염병 보도의 관심과 초점을 밝히고, 관련어를 중심으로 전염병 보도 프레임을 구축하는 데 있다.

프레임(틀, frame)¹⁾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해 왔는데, 테넨(Tannen, 1979)에 따르면 인류학, 사회학, 인공지능, 언어학 영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프레임 개념은 베이트슨(Bateson: 1955)²⁾이 인류학적 관점에서 처음 도입하여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속에서 프레임 없이는 어떤 의사소통 행위도 해석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고, 고프만(Goffman, 1974)과 프레이크(Frake, 1977)는 프레임을 문화적, 사회적 관점으로 확대시켰다. 언어학 영역에서는 필모어(Fillmore, 1975/1982)가 단어 의미 이해를 위해 프레임을 사용하면서³⁾, 담화 분석, 의미 습득, 언어 범주의 경계 등 세 가지 영역에서 프레임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내에서도 프레임은 언어/언론및미디어/인공지능/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언어문화 및 사회문화적 특성, 관점 및 태도 분석의 주요 개념으로 다루

1) 프레임(frame)은 스키마(schema)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이론적 기술은 제외한다. 다만 테넨 외(Tannen & Wallat, 1987)에 따르면 ‘프레임’은 인류학/사회학 관점에서, ‘스키마’는 인지심리학/인공지능학 관점에서 사용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프레임’은 ‘스키마’보다 동적이고 문화적 배경이 강조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테넨 (Tannen, 1993: 3)에 따르면 프레임 개념은 베이트슨 (Bateson, [1954]1972: 323)이 처음 도입하였는데,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a frame is metacommunicative. Any message, which either explicitly or implicitly defines a frame, ipso facto gives the receiver instructions or aids in his attempt to understand the messages included within the frame.”

3) 박정운(2000: 67)에서는 “틀의미론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단어의 존재와 사용에 대한 배경과 동기를 제공하는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어져 왔다. 특히 미디어 영역에서 프레임 연구는 미디어의 관점⁴⁾과 정치적 성향 비교, 국면에 따른 프레임 경쟁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⁵⁾ 전염병 발생이라는 사건은 정치적 입장이나 개인적 성향과는 거리가 먼 주제이지만, ‘전염병 보도’라는 언어 수행 결과물은 그 자체로 특정한 입장과 관점이 반영된다. 전염병은 질병이지만, 확산성과 위험성 정도에 따라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비상 상황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질병 자체의 위험보다도 그것이 사람들의 심리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을 보도 프레임으로 구축하여, 전염병 보도의 특성과 관점을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80개월의 KBS 9시 뉴스 자료를 대상으로, 주제어 색인 작업을 통해 주제어를 추출하여 분석한다. 주제어 색인은 일반적으로 의미 가중치가 높은 명사를 주제어로 추출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명사 중심 주제어 색인’을 사용한다.⁶⁾ 이 과정에서 의존명사와 {내일/ 오늘/ 모두}⁷⁾와 같이 부사 빈도가 높은 단어는 주제어 목록에서 제외한다. 합성명사는 {보건당국}이나 {역학조사}, {예방접종}과 같이 굳어진 표현, {세계보건기구}나 {퇴지인플루엔자}와 같은 고유명사는 한 단어로 분류하였으나 {격리조치}, {대형병원}과 같은 단어는 각각 {격리}, {조치}, {대형}, {병원}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⁸⁾

둘째, 앞서 구축한 주제어 색인 목록에서 {암/ 독감/ 신종플루}가 사용된

4) 엔트만(Entman, 1993: 52)의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초점과 선택을 동반한다(Framing essentially involves selection and salience)’는 기술이 이를 잘 반영한다.

5) 정치적 관점에서 프레임 경쟁은 레이코프(Lakoff, 2004/2006)의 연구가 많이 알려져 있다. 한편 이상률·이준웅(2014: 379)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의료분쟁 사태’나 ‘핵폐기장 유치 문제’, ‘용산 참사 사건’ 등이 대표적인 연구 사례이다.

6) 동사와 형용사는 형태 및 의미적 중의성이 높아 처리 과정에서 문맥적 처리가 필요하고, 실제로 빈도가 높은 {하다/ 가다/ 보다} 등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상황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건이나 주제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명사가 언어 자료 분석에서는 가치가 있으므로, 명사를 중심으로 관련어를 분석한다. 주제어 색인의 이론적 배경은 Luhn(1958), Grishman(1986), Kupiec(1995) 등으로 대신한다.

7) { }은 언어 형식을, []은 의미 자질을 지시한다.

8) 합성명사는 <표준국어대사전>이나 포털사이트 어학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한 단어로 취급한다.

문장만을 추출하여, 15년 동안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고, 각각의 문장에서 사용된 관련어를 빈도순으로 정렬하여 분석한다.⁹⁾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신종플루/ 메르스}는 전염병의 일종이지만, {독감}처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과는 다르다. 또한 {암/ 뇌졸중}과 같은 질병과도 보도문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질병 어휘 중 빈도가 높은 {암/ 독감/ 신종플루}를 대상으로, 관련어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염병 보도의 관심과 초점을 밝힌다.

셋째, 전염병 어휘 중 최근 15년 동안 출현 빈도가 높은 {신종플루}와 {메르스}를 대상으로 관련어를 추출하여 이들을 의미 영역에 따라 분류하고, 각 의미 영역이 어떤 관점과 태도를 반영하는 지를 분석한다. {신종플루/ 메르스}는 각각 2009년과 2015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전염병이어서 15년 동안의 추이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해당 연도의 시간 단위를 분절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2009년과 2015년을 각각 주 단위로 분절하여 총 52주 동안의 출현 양상 및 추이를 살펴본다. 또한 {신종플루/ 메르스}가 쓰인 문장에서 어떤 관련어가 함께 사용되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염병 보도의 프레임을 구축하고자 한다.

전염병 보도에 나타난 주제어와 관련어는 어휘 층위에서는 어휘망으로 결합된 관계이지만, 사회문화 층위에서는 사건과 사건이 개연성을 갖고 연결된 것이다.¹⁰⁾ 예를 들어, {메르스}를 주제로 한 보도문에서 {메르스}와 함께 나타나는 관련어를 보면, {병원/ 환자}와 함께 {감염/ 확산/ 격리}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¹¹⁾ 이들 관련어는 전염병이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질병과는 차별적으로 다루어짐을 보여준다. 전염병의 확산력 때문

9)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박건숙(2013: 89-110)에서 살펴볼 수 있다.

10) 테넨(Tannen, 1979: 142)은 인류학적/사회학적 관점에서 ‘프레임’은 사건의 연속보다는 관계적 개념(“relational concept rather than a sequence of events”)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송경숙(2002: 77)에서도 “프레임은 사건의 연속보다는 관계적 개념으로, 사회적 의미를 갖는 ‘상호작용적 단위(interactional unit)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있다.

11) 긴즈버그(Ginsberg, 2009)에서는 구글이 검색통계로 독감 유행지수의 변화를 추측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언어적 측면에서 검색통계의 변화는 특정 주제어의 빈도 변화이지만, 이는 관련 사건이 단어로 기호화된 것이고, 단어 검색 빈도의 증가는 사건 발생이나 확산의 신호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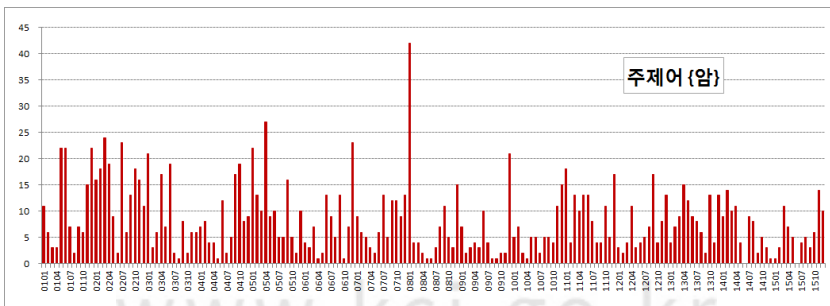
에 [기관]에서도 {병원/ 보건당국/ 세계보건기구}와 같이 의료 기관에서 정부 기관, 나아가 국제기구로 확대되어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종플루/ 사스}와 같은 전염병 주제어와 관련어를 어휘 결합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 어휘로 대표되는 사건의 연결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관련어를 의미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사건과 사건의 관계를 해석하고, 관점과 입장이 반영된 프레임으로 구축하여 명확하게 해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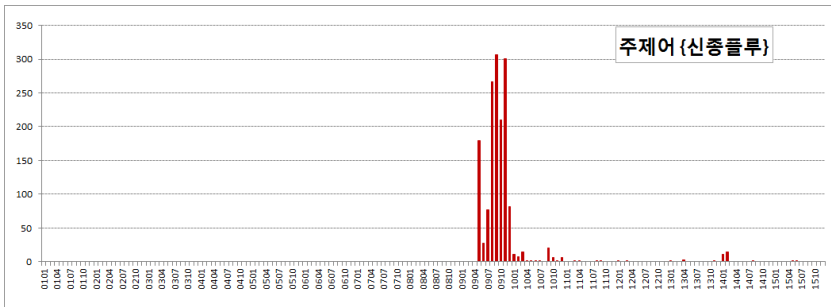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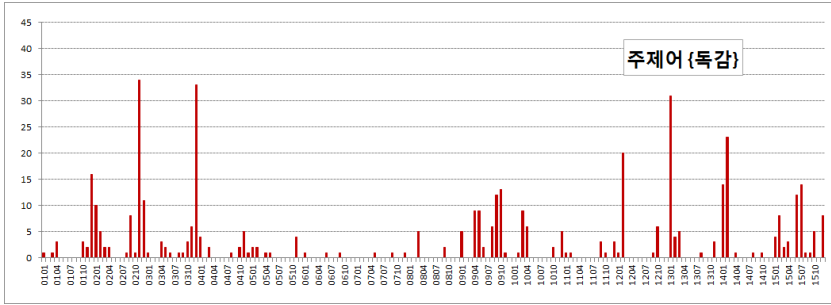
2. {암/ 독감/ 신종플루}의 출현 양상 및 관련어 비교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5년 동안 나타난 질병 어휘를 빈도순으로 정리하면 {메르스/ 신종플루/ 구제역/ 광우병/ 암/ 사스/ 감기/ 뇌졸중/ 고혈압/ 우울증/ 치매/ 조류독감/ 당뇨병} 등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메르스}는 2014년까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은 질병 어휘로, 빈도 자체는 가장 높지만 2015년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비해 {암/ 감기} 등은 {메르스/ 신종플루}에 비해 출현 빈도는 낮지만 15년 동안 주기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어휘 출현 양상의 차이점은 {암}과 {메르스}가 다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전염성이 없는 {암}과 유행성 전염병인 {독감}, 2009년에 등장한 {신종플루}를 대상으로 15년 동안의 출현 양상을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주제어 {암(상)/ 독감(중)/ 신종플루(하)}의 15년간 출현 양상>





{암}은 총 180개월 동안 꾸준히 등장한다. 물론 특정한 시기에 비교적 높은 빈도로 출현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독감}은 출현 시기가 {암}에 비해 훨씬 적다. {암}은 총 180개월 중에서 뉴스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달은 두 달밖에 없는데 비해서 {독감}은 5월에서 8월 사이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눈에 띄게 빈도가 높아진 시기를 보면, 대부분 12월에서 2월 사이이기 때문에 출현 양상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신종플루}는 2009년 5월에 뉴스에서 처음 다루기 시작한 전염병 이름으로, 그 이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전체 출현 빈도는 {암}이나 {독감}보다 훨씬 높지만, 그 출현 시기는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약 8개월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후에 잠시 등장하지만 {독감}처럼 주기적으로 등장하지도 {암}처럼 꾸준히 등장하지도 않는다.

{암/ 독감/ 신종플루}는 질병을 지칭하는 주제어이지만, 이들의 출현 양상은 이들 질병의 특성이 각각 다르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차이가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독감}과 {신종플루}는 질병의 증상이나 전염 가능성 등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문에 나타난 관련어를 분석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크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표 2: 주제어 {암/ 독감/ 신종플루}의 관련어>¹²⁾

순위	{암}(1485)		{독감}(448)		{신종플루}(1690)	
	관련어	빈도	관련어	빈도	관련어	빈도
1	치료	183	유행	77	감염	279
2	환자	140	환자	54	환자	273
3	세포	98	예방	43	확산	150
4	유발	94	바이러스	42	사망자	131
5	질환	88	홍콩	35	국내	116
6	사망	86	신종플루	31	병원	110
7	연구	83	감기	28	감염자	107
8	사람	76	겨울/접종/폐렴	25	확진	93
9	결과	73	감염/계절성/예방접종	24	확인	91
10	발견/발생/수술/원인	70	인플루엔자	23	바이러스	85
11	예방	65	기승/ 사람	22	의심	83
12	담배/ 위험	56	확산	21	학교/세계	77
13	조기	55	어린이	20	학생/ 사람	76
14	흡연	51	증상	19	독감	71
15	진단	54	미국/ 사망	18	돼지인플루엔자	68
16	물질	53	백신	17	접종/정부	66
17	남성	48	비상/사스/주의	16	미국/	65
18	여성	44	노인/병원/보건당국/효과	15	예방	64
19	유전자	40	입원/합병증	14	발생	63
20	건강	38	노약자/특징	13	백신	62

{암/ 독감/ 신종플루}의 상위 빈도 관련어를 보면, 세 질병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관련어는 {환자/ 사망/ 사람}뿐이다. {사망}의 경우, {신종플루}에서는 {사망자}로 실현되어, 어근이 아닌 단어 층위에서는 {환자/ 사람}만이

12) {암/ 독감/ 신종플루}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관련어를 진하게 표시하였다.

공통 관련어이다. 이는 {암/ 독감/ 신종플루}가 질병 어휘에 속하지만 그 속성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암/ 독감/ 신종플루}의 최고 빈도 관련어는 각각 {치료/ 유행/ 감염}이다. 이들 관련어는 각 질병에 대해서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¹³⁾ {암}은 전염되거나 유행처럼 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병 발생 이후의 {치료}를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 반면에 {독감/ 신종플루}는 전염성을 지니는 질병이기 때문에 {유행/ 감염}을 우선적으로 다룬다. 이들 상위 빈도 관련어를 의미 영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주제어 {암/ 독감/ 신종플루}의 [사람/ 기관/ 장소/ 시간] 관련어>

의미	{암}	{독감}	{신종플루}
[사람]	{환자/ 사람/ 남성/ 여성}	{환자/ 사람/ 어린이/ 노인/ 노약자}	{환자/ 사망자/ 감염자/ 학생/ 사람}
[기관]	-	{병원/ 보건당국}	{병원/ 학교/ 정부}
[장소]	-	{홍콩/ 미국}	{국내/ 세계/ 미국}
[시간]	{조기}	{겨울/ 계절성}	-

먼저 [사람]을 살펴보면, 질병 관련 보도문에서 {환자}는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데, 빈도 면에서 {환자}는 {암/ 독감/ 신종플루} 모두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다. {암}은 {남성/ 여성}이, {독감}은 {어린이/ 노인/ 노약자}가, {신종플루}는 {사망자/ 학생/ 감염자}가 각각 높은 빈도를 보인다. {암}과 {독감}은 각각 해당 질병에 취약한 대상을 지칭하는 관련어가 먼저 등장한 반면, {신종플루}는 전염병의 감염 여부나 중증 정도에 따른 관련어가 먼저 등장한다. 이러한 차이는 전염병이 다른 질병과는 달리 확산이 가능하고, 빠른 시간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환자}가 아닌, 환자 상태에 따라 {사망자/ 감염자}로 세분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신종플루}에서 {사망자}의 빈도는 {암/ 독감}의 {환자} 빈도와 비슷하거나 높게 나타

13) 신현숙·이지영(2000: 23)에 따르면, 체프(Chafe, 1994)는 의식의 영속성으로 '의식은 초점(focus)을 가지고 있으며, 동적(dynamic)이고, 관점(point of view)을 가지고 있으며, 예비지식(orientation)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체프 교수의 이론을 바탕으로 위의 책에서도 '우리가 사건이나 사물을 인지하는 데도 초점이 놓이는 중심과 주변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난다. 이런 면에서 {사망}과는 달리 {사망자}는 다른 질병에 비해 신종플루가 당시에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기관]에서도 이들 질병의 관련어는 차이가 있는데, {암}은 다른 기관은 물론 {병원}도 상위 빈도어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독감}은 {병원/보건당국}이, {신종플루}는 {병원/ 학교/ 정부}가 상위에 등장한다. 이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대처하는 기관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질병의 치료는 {병원}이 주도적인 기능을 하지만, 전염병은 {보건당국}이나 {정부}와 같이 정부 주도 기관이 적극 개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종플루}는 {학교}와 {정부}가 {보건당국}보다도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염병이 단순 질병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장소] 및 [시간]을 비교해 보면, {암}은 [시간] 관련어로 {조기}가 등장한다. 이때 {조기}는 병의 진행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시기로, 치료 가능 여부에 초점을 둔 표현이다. 반면 {독감}과 함께 등장하는 {겨울/ 계절성}은 일정 시기에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예측이 가능한 전염병임을 보여주는 관련어이다. [장소]를 지시하는 관련어에서는, {암}은 특정한 [장소] 관련어가 상위 빈도어에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에 {독감}은 {홍콩/ 미국}이, {신종플루}는 {세계/ 미국}이 등장하는데, 이는 독감보다 신종플루가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어 문제가 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음은 {암/ 독감/ 신종플루} 보도문에서 [상태]나 [대응]을 지시하는 관련어를 비교해 보자.

<표 4: 주제어 {암/ 독감/ 신종플루}의 [상태/ 대응/ 감정] 관련어>

의미	{암}	{독감}	{신종플루}
[상태]	{사망/ 발견/ 발생/ 위험}	{유행/ 감염/ 기승/ 확산/ 사망/ 비상/ 주의}	{감염/ 확산/ 확진/ 발생}
[대응]	{치료/ 연구/ 수술/ 예방/ 진단}	{예방/ 접종/ 예방접종/ 입원}	{접종/ 예방}
[감정]	-	-	{의심}

[상태] 관련어를 보면, {암}은 {사망/ 발견/ 발생}처럼 질병을 처음 인식하는 단계에 초점을 두는 반면, {독감/ 신종플루}는 {유행/ 감염/ 확산}으로 알 수 있듯이 병이 퍼져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둔다. {독감}과 {신종플루}도 차이가 있는데, {독감}은 {유행/ 기승}¹⁴⁾과 같이 질병이 널리 퍼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반면, {신종플루}는 {감염}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 또한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확진/ 확인}도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데, 이는 관련어 {감염}이 상위 빈도어로 등장할수록 해당 전염병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대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독감}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이 우선적으로 등장하는 반면, {암}은 {치료}가, {신종플루}는 {접종}이 상위어로 등장한다. 여기에서 {암}은 {연구/ 수술/ 예방/ 진단}과 같이 질병에 대한 [대응]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관련어가 상위 빈도로 나타난다. 반면 {신종플루}는 {접종/ 예방}과 같이 전염병 감염을 차단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출현 빈도는 {신종플루}가 높지만, 질병에 대한 [대응] 방안은 {암}이 훨씬 지속적이고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감정] 관련어는 {신종플루}에서만 나타난다. {의심}은 불안한 심리를 반영한 것인데,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사람들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의심}이라는 관련어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같은 질병 범주라 할지라도 전염병이 사회 구성원의 심리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암}과 {독감}, {신종플루}의 관련어를 의미 영역에 따라서 비교, 분석해 보았다. {암}과 {독감/ 신종플루}는 각각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도 다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어의 의미 영역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감염 여부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쳐서, {암}과 {독감/ 신종플루}에 대한 대처 방식, 사태 해석에서 큰 차이를 보

14) {유행}과 달리 {기승}의 경우, {독감}에서는 비교적 상위 빈도어로 등장하는 반면, {신종플루}에서는 그 빈도가 무척 낮아지고 {메르스}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기승을 부린다’라는 표현은 그 기세나 기운의 영향이 크게 위협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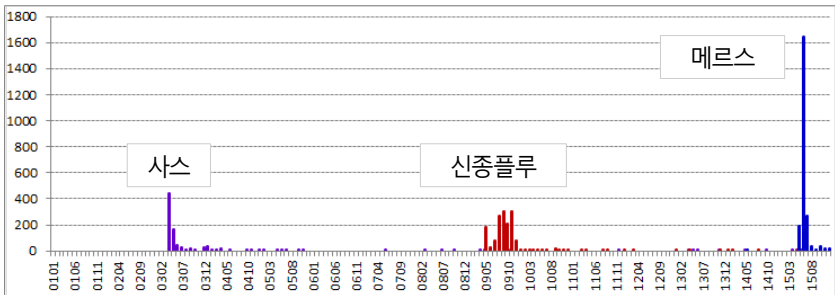
였다. 그러나 같은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독감}과 {신종플루}도 차이가 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독감}의 경우, {예방}과 {보건당국}의 노력이 중요한 반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신종플루}의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한 {접종/예방}과 정부 차원의 국가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신종플루}나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을 일반적인 질병이나 유행성 전염병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장에서는 {신종플루}와 {메르스}를 대상으로 보도문에 나타난 관련 어를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3. {신종플루/ 메르스}의 관련어 비교

2장에서는 {암}과 {독감}, {신종플루}의 15년 동안의 출현 양상을 비교하였다. {암}은 총 180개월 동안 비교적 빠짐없이 등장한 반면, {독감}은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집중적으로 등장하였고, {신종플루}는 2009년 5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등장하였다. 지난 15년 동안 국내에 영향을 준 {사스/신종플루/ 메르스}의 출현 양상을 살펴보자.

<표 5: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의 15년 동안의 출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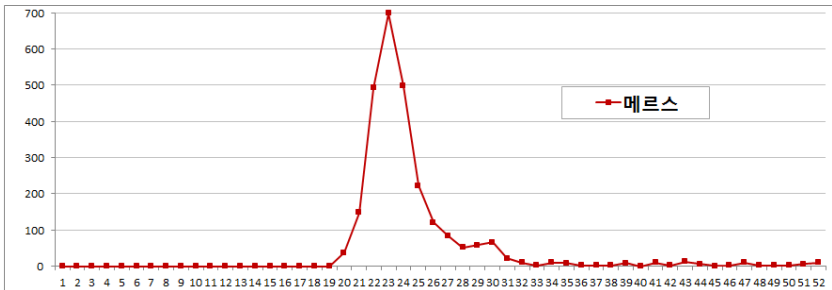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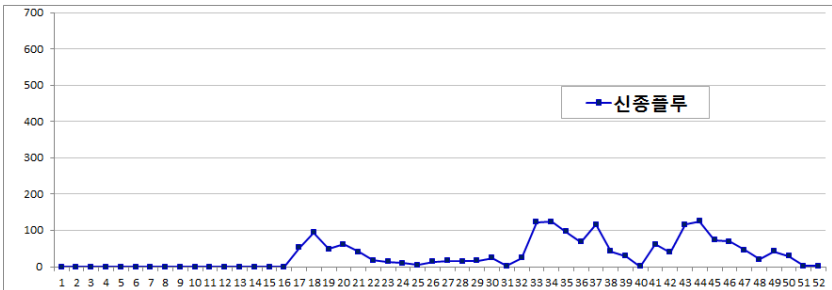


{사스}는 2003년 4월에, {신종플루}는 2009년 5월, {메르스}는 2014년 5월에 처음 등장한 후에 2015년 5월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전염병 어휘의 출현 양상을 보면, 앞서 살펴본 {암}이나 {독감}과는 달리 돌발적으로 급격하

계 빈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메르스}의 경우, 2015년 6월 한 달 동안 1700회 가까이 출현하는데, 이는 {암}이 15년 동안 출현한 빈도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사스/ 신종플루} 역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시기에는 한 달 동안 200회 이상 등장하는데, {암}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때에도 50회를 넘지 못한 것을 보면, 전염병이 주는 사회적 충격은 {암}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종플루}와 {메르스}는 각각 2009년과 2015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전염병이다. 이에 {신종플루}와 {메르스}가 출현한 2005년과 2015년을 주 단위로 분절하여 각각 총 52주 동안의 {신종플루/ 메르스} 출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6: {신종플루/ 메르스}의 52주(1년) 동안의 출현 양상>



{신종플루}는 17-18주에 잠시 빈도가 상승했다가 하락한 이후에 33주에 급격히 상승하고, 다시 43-44주에 상승했다가 연말에 빈도가 하락한다. 이에 비해 {메르스}는 20주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21주부터 23주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24주부터는 빠른 속도로 빈도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24주와 25주의 빈도가 23주에 비해서는 낮지만 절대적인 빈도로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높은 빈도이다.

{신종플루}와 {메르스}의 출현 양상을 비교해 보면, {신종플루}는 17주부터 50주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발생 초기보다는 중기 이후에 더욱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메르스}는 20주부터 약 32주까지 {신종플루}에 비해서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문제가 되었고, 출현 빈도만으로 보면 뉴스의 강도는 어떤 전염병보다도 심각하게 다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신종플루/ 메르스}는 모두 돌발적인 전염병으로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주 단위로 분절해 보면 전염병의 확산 과정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종플루/ 메르스}는 주 단위로 보았을 때에는 전염병의 진행 양상에 차이가 있지만, 다른 질병과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많다. 이는 이들의 관련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7: {신종플루/ 메르스} 상위 빈도 관련어>15)

순위	{신종플루}(1690)		{메르스}(2626)		순위	{신종플루}(1690)		{메르스}(2626)	
	관련어	빈도	관련어	빈도		관련어	빈도	관련어	빈도
1	감염	279	환자	868	26	추가	45	검사/ 감염자	65
2	환자	273	병원	387	27	판정	44	중국	62
3	확산	150	감염	338	28	멕시코/타미플루	42	방역	61
4	사망자	131	확진	247	29	검사/ 대책	40	종식/ 입원	60
5	국내	116	격리	195	30	북한/ 어린이	39	의사/ 공개	52
6	병원	110	사태	185	31	대유행	37	가능성	51
7	감염자	107	발생	171	32	페렴	36	응급실	50
8	확진	93	확산	167	33	가능성/ 시작	35	대책	49
9	확인	91	판정/ 정부	129	34	세계보건기구 (Who)	34	세계보건기구 (Who)	48

15) {신종플루/ 메르스}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관련어를 진하게 표시하였다.

10	바이러스	85	삼성서울병원	125	35	건강/ 이상	33	격리자/ 바이러스	45
11	의심	83	추가	118	36	일본	32	방문/ 조치	44
12	학교/ 세계	77	의심	116	37	공포	31	경제/ 병실	43
13	학생/ 사람	76	국내	109	38	유행	30	정보	41
14	독감	71	확진자	105	39	남성	28	퇴원/ 노출	40
15	폐지인플루엔자	68	증상/치료	104	40	감기/격정/결과/ 치료제	27	중동호흡기중 후군	39
16	접종/ 정부	66	확인	93	41	고위험군	25	사망자/ 사실	38
17	미국	65	보건당국	84	42	변종	24	간호사/ 관광	36
18	예방	64	사람/ 접촉	82	43	경고/상황/ 여행	23	피해	35
19	발생	63	대응	78	44	격리/발열/수능/ 합병증/휴교	22	발병	34
20	백신	62	의료진	77	45	돼지/ 사례/필요	21	여성/ 여행	33
21	우려/ 치료	58	한국	76	46	불안감/중국/지 원/휴업	20	진원지/ 최초/ 증세	32
22	보건당국	56	진료	73	47	경제/진단/질병 관리본부/평소	19	관광객/ 상태	31
23	증상/ 비상/ 여성	50	우려/ 여과	71	48	가능/ 대응/보건 소/위험/집계/치 사율	18	필요/ 차단	30
24	사망	48	의료/ 전과/ 남성	69	49	문제/서울/치방/ 효과	17	사례	29
25	증세	46	사망	67	50	계획/긴장/검토	16	공포/불안감/ 학교/휴업	28

<표 2>의 {암}이나 {독감}과는 달리 {신종플루/ 메르스}는 공통 관련어가 많은데, 특히 상위 빈도어에서 공통되는 관련어가 많다. 이는 {신종플루}와 {메르스}는 전염병의 성격이나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종플루}의 관련어는 약 3200여 개이다. 이중 상위 빈도 50위에 속하는 {계획/ 긴장/ 검토}까지가 84개로, 이들이 관련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이다. 그러나 전체 용례 빈도 측면에서는 상위 빈도 50위의 관련어 용례 빈도가 전체의 37%를 차지한다. {메르스}의 관련어도 약 4200여 개로, 이중 상위 빈도 50위의 {공포/ 불안감/ 학교/ 휴업}까지 총 73개의 관련어는 전체 관련어 중 1.5%에 불과하지만, 용례 빈도는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이는 상위 빈도어가 {신종플루/ 메르스} 보도문의 주제와 초점을 결정하고, 보도문

의 프레임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신종플루/ 메르스} 보도문에 나타난 상위 빈도 관련어를 [의료/ 정치/ 교육/ 경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

<표 8: {신종플루/ 메르스}의 [의료/ 정치/ 교육/ 경제] 관련어>

{신종플루}		{메르스}	
[의료] (1836)	{감염/ 환자/ 병원/ 감염자/ 확진/ 바이러스/ 독감/ 폐지인플루엔자/ 접종/ 예방} 등	[의료] (3212)	{환자/ 병원/ 감염/ 확진/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증상/ 치료/ 의료진/ 진료/ 의료} 등
[정치] (141)	{정부/ 보건당국/ 질병관리본부}	[정치] (213)	{정부/ 보건당국}
[교육] (197)	{학교/ 학생/ 수능/ 휴교}	[교육] (56)	{학교/ 휴업}
[경제] (42)	{여행/ 경제}	[경제] (143)	{경제/ 관광/ 여행/ 관광객}

전염병 보도문은 [의료] 영역의 관련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관련어는 {감염/ 환자/ 병원}인데, 이들 관련어는 전염병의 특성과 대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의료] 이외의 영역은 빈도 면에서 {신종플루}와 {메르스}가 차이가 있는데, 먼저 {신종플루} 보도문에서는 [교육>정치>경제] 영역의 순서로 관련어의 빈도가 나타난 반면, {메르스} 보도문에서는 [정치>경제>교육] 영역의 순서로 나타난다. 각 영역의 대표적인 관련어를 살펴보면, [교육] 영역은 {학교/ 학생/ 휴교}, [정치] 영역은 {정부/ 보건당국}, [경제] 영역은 {여행/ 경제/ 관광}이다. 이들 영역은 [의료] 영역처럼 전염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정치] 영역은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교육] 및 [경제]는 전염병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상위 빈도 50위에 속하는 관련어를 분석한 결과, 전염병 보도문은 [의료] 영역과 함께 [정치/ 경제/ 교육] 영역이 함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제시되고 있

16) 의미 영역에 따른 기술은 {신종플루/ 메르스}에서 등장하는 빈도를 합쳐서 빈도 순위에 따라 제시한다. 각 의미 영역의 관련어 역시 빈도 순서로 제시한다.

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련어를 중심으로 전염병 보도의 프레임을 제시한다.

4. {신종플루/ 메르스}의 보도 프레임

이 장에서는 전염병 보도문에서 나타난 [의료/ 정치/ 경제] 영역을 대상으로, 각 영역을 대표하는 보도 프레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확산 통제 프레임

전염병은 일반적으로 ‘발생>확산>소멸’의 세 단계를 거친다. 앞서 제시한 <표 2>의 {암}의 경우, {치료/ 유발/ 발견}이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신종플루}는 {감염/ 확산}이 가장 상위 빈도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염병의 경우 ‘발생’보다는 ‘확산’에 더욱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전염병의 진행 단계를 ‘발생/ 확산/ 소멸’로 구분하여 관련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신종플루/ 메르스}의 [상태] 관련어>

{신종플루}		{메르스}	
확산 (625)	{감염/ 확산/ 대유행/ 유행/ 전염/ 전파} 등	확산 (673)	{감염/ 확산/ 전파/ 전염/ 유행/ 급증} 등
발생 (106)	{발생/ 시작/ 발견}	발생 (257)	{발생/ 발병/ 시작/ 발견} 등
소멸 (15)	{진정/ 급감/ 안정}	소멸 (136)	{종식/ 진정/ 감소/ 종료} 등

{신종플루/ 메르스} 보도문을 살펴보면, {감염/ 확산}이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나고, 그 밖에 {유행/ 전염/ 전파} 등 [퍼져나감]의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 집중적으로 사용된다. 반면 전염병이 진정되고 소멸됨을 알리는 {진정/ 종식/ 감소} 등의 단어는 그 비율이 가장 낮다. 전염병 보도문은 ‘발생’과 ‘확산’에 초점을 두는데, 특히 ‘확산’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전염병 보도문이 ‘확산’에

초점을 두다보니 대응에서도 ‘확산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염병에 대한 [대응] 관련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신종플루/ 메르스}의 [대응] 관련어>

{신종플루}		{메르스}	
일반 (198)	{대책/ 대응/ 조치/ 검토/ 대처} 등	일반 (275)	{대응/ 조치/ 조사/ 대책} 등
통제 (79)	{격리/ 강화/ 관리/ 차단/ 통제/ 금지/ 금물} 등	통제 (341)	{격리/ 관리/ 차단/ 통제/ 강화/ 감시/ 금지} 등
치료 (194)	{접종/ 치료/ 입원/ 처방/ 투약/ 복용} 등	치료 (179)	{치료/ 입원/ 간병/ 처방}
경계 (105)	{경고/ 경계/ 당부/ 호소/ 경보/ 주의/ 조심/ 자제} 등	경계 (113)	{당부/ 권고/ 주의/ 자제/ 경보/ 조심/ 관심/ 경고} 등
예방 (91)	{예방/ 검역/ 방역}	예방 (100)	{방역/ 예방/ 검역/ 소독}

{신종플루/ 메르스}는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질병에 대한 ‘치료’보다는 정부 중심의 ‘통제’가 주요한 [대응] 전략으로 나타난다. {신종플루} 보도문에서는 일반적인 ‘대응’ 관련어인 {대책/ 대응/ 조치} 등과 ‘치료’ 관련어인 {접종/ 치료/ 입원} 등이 높게 나타나고, ‘통제’ 관련어인 {격리/ 강화/ 관리}는 비교적 빈도가 낮다. 이에 비해 {메르스} 보도문에서는 ‘통제’ 관련어인 {격리/ 관리/ 차단} 등이 ‘치료’ 관련어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앞서 제시한 <표 2>에서 {암}의 관련어로 {치료}가 가장 상위 빈도어로 등장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통제’와 함께 ‘경계’ 관련어도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데, {경고/ 주의/ 경보/ 당부} 등이 대표적이다. ‘통제’와 ‘경계’ 관련어는 적극적인 {격리/ 관리} 중심의 대응과 소극적인 {경고/ 당부} 중심의 대응이 함께 사용된다. 이는 사실상 {신종플루/ 메르스}를 치료 및 진료보다는 관리 및 통제 대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4.2 국가 재난 프레임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은 감염 및 전염의 위험 때문에 일반 질병과는 달리 의료 및 정부 기관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염병 발생은 일종의 ‘비상사태’로 간주되고, 이로 인해 보도문에서도 기본적으로 재난 상황 프레임이 나타난다. {신종플루/ 메르스} 보도문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고 확산되고 있는 전체적인 양상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신종플루/ 메르스}의 [상황] 관련어>

{신종플루}	{메르스}
상황(25)>문제(20)>사태(15)>양상(5)	사태(185)>상황(73)>문제(20)>양상(5)

{신종플루} 보도문에서는 {상황}이 높은 빈도로 사용된 반면, {메르스} 보도문에서는 {사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15년 동안의 뉴스 보도문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17) 위의 관련어 중에서 {문제}가 가장 상위 빈도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염병 보도문에서는 {상황}이나 {사태}의 빈도가 더 높다. {상황}은 ‘위기상황/ 피해상황’과 같이 부정적 상황에도 쓰이지만, ‘수사상황/ 교통상황/ 시장상황’처럼 객관적으로 일의 형편을 지시할 때에도 쓰인다. 이에 비해 {사태}는 ‘천안함사태/ 유혈사태/ 눈사태/ 이라크사태’와 같이 일의 형편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메르스}를 {사태}로 인지하고, {사태}의 빈도가 상위 10위 안에 든다는 것은, {신종플루}가 발생한 2009년보다 {메르스}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인지하였음을 보여준다.

전염병 발생은 국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 사태 해결에 적극 관여한다. 이는 {신종플루/ 메르스} 보도문에 나타난 [기관/ 사람] 관련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7) KBS 9시 뉴스 자료를 대상으로 주제어 색인 작업을 통해 명사를 빈도순으로 정리하면 {서울>한국>정부>경기>대표>미국>대통령>선수>문제>북한}의 순서로 나타난다.

<표 12: {신종플루/ 메르스}의 [기관] 관련어>

{신종플루}		{메르스}	
의료 (142)	{병원/ 거점병원/ 응급실/ 감염내과/ 대학병원/ 보건소/ 의료기관} 등	의료 (721)	{병원/ 삼성서울병원/ 의료기관/ 대형병원/ 보건소/ 경유병원} 등
정치 (189)	{정부/ 보건당국/ 질병관리본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한나라당} 등	정치 (381)	{정부/ 보건당국/ 당국/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
교육 (119)	{학교/ 학원/ 대학/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 (43)	{학교/ 학원/ 유치원/ 교육부} 등
국제 (35)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 (48)	{세계보건기구/ WHO}
경제 (9)	{기업/ 세계은행/ 업체}	경제 (22)	{기업/ 한국은행/ 관광공사/ 업체} 등

전염병 보도문에 나타나는 핵심 [기관]은 {병원}과 {정부}이다. 일반적으로 전염병은 치료나 예방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의료 기관 관련어가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염병은 전염과 확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부 차원의 관리와 통제도 필요하고, 이것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은 관련어 양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기관 외에 여야 정당 이름도 등장하는데, {신종플루}에서는 그 빈도가 낮았던 것이 {메르스} 보도문에서는 빈도가 20배 이상 상승하여 나타난다. 전염병의 확산성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질병 보도문과는 달리 {세계보건기구}도 높은 빈도로 등장한다.

한편 교육 기관 관련어가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는데, 이는 학교 및 학원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며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아 전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염병 발생 시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람] 관련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신종플루/ 메르스}의 [사람] 관련어>

{신종플루}		{메르스}	
의료 (528)	{환자/ 사망자/ 감염자/ 의심환자/ 고위험군/ 의사} 등	의료 (1362)	{환자/ 확진자/ 의료진/ 감염자/ 의사/ 격리자/ 간호사} 등
일반 (315)	{사람/ 여성/ 남성/ 어린이/ 영아} 등	일반 (637)	{사람/ 남성/ 여성/ 가족/ 국민/ 임신부} 등
정치 (33)	{대통령/ 대변인/ 국민/ 의원} 등	정치 (275)	메르스기획총괄반장/ 대통령/ 경찰/ 총리/ 장관/ 시장} 등
교육 (145)	{학생/ 수험생/ 교수/ 교사/ 고3/ 유학생/ 초등학생} 등	교육 (36)	{학생/ 교수/ 유학생/ 학부모/ 교사} 등
경제 (18)	{관광객/ 여행객/ 손님} 등	경제 (123)	{관광객/ 여행객/ 상인/ 소상공인/ 방문객} 등

[사람] 관련어에서는 ‘의료’ 관련어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 특히 {메르스} 보도문은 의료 영역 관련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메르스 발병 당시 의료인 감염자가 많았던 것과 관련이 크다. 의료 및 일반 관련어를 제외하면, {신종플루}는 ‘교육’ 관련어가, {메르스}는 ‘정치’ 관련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특히 ‘정치’ 관련어를 보면, {신종플루} 보도문에는 {대통령/ 대변인}과 같은 단어의 빈도가 높지 않은데, {메르스} 보도문에서는 상당히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총리/ 장관/ 시장} 등 관련어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신종플루}보다 {메르스} 발생 시기에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준다.¹⁸⁾

국가 재난 프레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관련어는 [위기]와 [감정] 관련어이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8) 한편 [사람]에서 ‘교육’과 ‘경제’ 영역 관련어가 {신종플루}와 {메르스} 보도문이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4.3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표 14: {신종플루/ 메르스}의 [위기] 및 [감정] 관련어>

의미	{신종플루}		{메르스}	
	비상 (148)	{비상/ 위협/ 심각/ 위기/ 악화/ 고비/ 초비상/ 충격/ 마비/ 어려움/ 재난}	비상 (128)	{비상/ 위협/ 어려움/ 고비/ 위기/ 악화/ 혼란/ 마비/ 초비상}
[위기]	긴급 (60)	{급속/ 속출/ 급증/ 긴급/ 신속/ 시급/ 폭발적} 등	긴급 (59)	{긴급/ 급증/ 시급/ 신속/ 속출/ 확산일로}
	전쟁 (5)	{전쟁/ 고군분투/ 출사표}	전쟁 (33)	{직격탄/ 최전선/ 사투/ 전쟁/ 총력전/ 진두지휘} 등
[감정]	불안 (223)	{우려/ 불안/ 의심/ 공포/ 걱정/ 긴장} 등	불안 (287)	{의심/ 우려/ 불안/ 공포/ 걱정/ 긴장} 등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긴급 상황은 {비상/ 위협/ 위기} 등의 관련어로 나타난다. 특히 {초비상/ 마비}와 같은 관련어는 빈도는 높지 않지만,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의미한다. 전염병 발생은 ‘속도’를 지시하는 관련어로도 나타나는데, {급속/ 긴급/ 급증/ 속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관련어는 빠른 속도를 지시함으로써 상황이 매우 긴박하고 위험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국가 재난 프레임은 {신종플루/ 메르스}를 ‘전쟁’으로 비유한 것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1) ㄱ. {전쟁}: 신종플루와의 **전쟁**에서 의사 구하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종플루 백신 접종 ‘예약 **전쟁**’/ 요즘 하루하루가 메르스와의 **전쟁**입니다.
- ㄴ. {사투}: 의료진, 환자 메르스와 **사투**/ 메르스와 ‘24시간 **사투**’
- ㄷ. {직격탄}: 메르스 사태는 공공의료 기관에 의존해 오던 취약 계층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직격탄**을 맞았던 평택 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메르스 **직격탄**...대책은?
- ㄹ. {최전선}: 메르스 **최전선** ‘음압 병상’/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감염병 치료 의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환자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진들
- ㅁ. {총력전}: 이번 한 주도 메르스와의 **총력전**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광주는 메르스 방역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 ㅂ. {진두지휘}: 박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메르스 대응을 **진두지휘**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메르스 확산을 막겠다며 **진두지휘**를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 ㅅ. {고군분투}: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이 있는 반면

전염병을 전쟁에 비유한 위와 같은 표현은 {신종플루} 보도문에서는 {전쟁/ 고군분투/ 출사표}로 나타났으나 {메르스} 보도문에서는 {직격탄/ 최전선/ 총력전/ 사투/ 진두지휘/ 강행군} 등 다양한 어휘가 사용되었고 그 빈도도 크게 늘었다. 이러한 양상은 전염병이 ‘전쟁’과 같은 국가 재난 혹은 위기 상황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비상 상황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데, 이는 [감정] 관련어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염병 보도문에는 [감정] 중에서 ‘불안’을 지시하는 관련어가 많이 등장한다. {우려/ 불안/ 의심/ 공포}가 대표적인데, 이들 관련어는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잘 보여준다. [위기]는 전염병 발생 상황이 위험하고 불안정함을 강조하고, [감정] 중 ‘불안감’은 전염병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더욱 증폭시킨다.

한편 국가 재난 프레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신종플루} 보도문보다 {메르스} 보도문에서 정부 기관과 정치인의 역할이 훨씬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메르스} 상황이 더욱 심각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기] 관련어는 {신종플루} 보도문에서 더욱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단순히 {메르스} 상황이 훨씬 위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신종플루}에서 {메르스}를 거치면서 전염병에 대한 인식과 초점이 ‘전염병 발생’보다는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⁹⁾ 이와 함께 재난 극복을 위한 정부 기관의 역할 또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경제 위기 프레임

전염병 발생은 그 자체로도 비상 상황이지만, 그것이 다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앞서 살펴본 [사람] 관련어를 ‘의료’ 및 ‘일반’ 영역을 제외하여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기사문의 초점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재난 상황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간에 따른 단어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변화의 방향을 전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강범모·김홍규(2011)와 김일환 외(2012), 박건숙(2014)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15: {신종플루/ 메르스}의 [사람] 관련어>

{신종플루}		{메르스}	
정부 (33)	{대통령/ 대변인/ 국민/ 의원} 등	정부 (275)	{메르스기획총괄반장/ 대통령/ 경찰/ 총리/ 장관/ 시장} 등
교육 (145)	{학생/ 수험생/ 교수/ 교사/ 고3/ 유학생/ 초등학생} 등	교육 (36)	{학생/ 교수/ 유학생/ 학부모/ 교사} 등
경제 (18)	{관광객/ 여행객/ 손님} 등	경제 (123)	{관광객/ 여행객/ 상인/ 소상공인/ 방문객} 등

{신종플루} 보도문에서는 ‘의료’ 및 ‘일반’ 영역을 제외하고는 ‘교육’ 영역의 [사람] 관련어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특히 학생들을 주의시키고 관리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메르스} 보도문에서는 ‘경제’ 영역의 [사람] 관련어가 ‘교육’ 영역보다 훨씬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경제 영역의 [사람] 관련어는 신종플루보다 메르스 보도문에서 약 6배 이상 증가하였고, 교육 영역의 {학생/ 교수} 등의 빈도는 {관광객/ 여행객}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신종플루에서 메르스로 넘어 오면서 전염병 보도의 초점이 전염병 자체의 문제보다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양상은 {신종플루/ 메르스} 보도문에 등장하는 경제 영역의 다양한 업종 관련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표 16: {신종플루/ 메르스}의 [업종] 관련어>

{신종플루}		{메르스}	
관광 (48)	{여행/ 관광객/ 관광/ 여행사/ 호텔/ 숙박} 등	관광 (157)	{관광/ 여행/ 관광객/ 여행객/ 크루즈/ 호텔/ 숙박} 등
일반 (35)	{경제/ 경기/ 소비/ 업계/ 업종/ 매출} 등	일반 (122)	{경제/ 소비/ 경기/ 매출/ 내수/ 업종} 등
유통 (4)	{마트/ 유통업계/ 시장}	유통 (43)	{시장/ 백화점/ 유통/ 세일/ 마트} 등
금융 (8)	{세계은행/ 환율/ 엔화} 등	금융 (32)	{금리/ 금융/ 한국은행/ 융자/ 돈} 등

{신종플루/ 메르스} 보도문에서는 {경제/ 경기/ 소비}와 같이 경제 일반을 지시하는 관련어보다는 {관광/ 여행}이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관광’ 영역의 관련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메르스} 보도문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전염병이 감염의 속성을 지니는 만큼, 이동과 관련이 큰 관광 산업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통’ 영역의 관련어도 등장하는데, 이 역시 {메르스} 보도문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다.

한편 ‘금융’ 영역은 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적어 보이는데도 관련어가 등장하는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2) ㄱ. 로이터 통신은 세계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돼지 인플루엔자가 전세계로 확산될 경우 총 3조 달러, 우리돈 4000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 ㄴ. 업계는 최근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신종플루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누그러지면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ㄷ.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앞으로 며칠간 메르스의 확산 속도가 금리 인하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예를 보면, 전염병 발생과 확산이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 상황을 전망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염병 보도문에는 경제 상황을 지시하는 다양한 관련어가 함께 등장하는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표 17: {신종플루/ 메르스}의 [경제] 관련어>

{신종플루}		{메르스}	
상태 (11)	{경기침체/ 불황/ 경제위기/ 소비위축} 등	상태 (23)	{수출부진/ 불황/ 마이너스/ 금융위기} 등
지표 (0)	-	지표 (13)	{성장률/ 경제지표} 등
대응 (4)	{경기회복/ 일자리창출/ 예비비} 등	대응 (45)	{추경예산/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경기회복} 등

[경제] 상태를 지시하는 관련어로는 {경기침체/ 불황}이 대표적이다. 이들 관련어는 전염병 발생이 경제 활동의 여건을 악화시켜 경기침체와 위기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3) ㄱ. 신종플루에 의한 **경기침체**를 당장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위축**에 머물지 않고 생산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ㄴ. '**메르스 불황**'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메르스 영향으로 경기가 가라앉았는 데요.
- ㄷ. '**메르스 추경**' 빠른 집행 중요./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메르스 추경**입니다.
- ㄹ. 메르스 사태가 잠잠해졌지만 **경기회복**은 더디기만 한데요.

{신종플루} 보도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경제성장률/ 경제지표}와 같은 관련어가 {메르스} 보도문에서는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표 관련어의 등장은 이전보다 뉴스 보도문에서 전염병 발생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초점을 두고 보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메르스 불황' 혹은 '메르스 추경'이라는 단어는 메르스가 경제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종플루} 보도문에서는 {경기회복/ 일자리창출} 등이 대응 방안을 지시하는 관련어로 사용되었으나 그 빈도는 낮았다. 그러나 {메르스} 보도문에서는 {추경예산/ 경제활성화}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 곳곳의 문제 중 경제적인 타격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도 예산 편성, 경제 활성화 등 경제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0) 전염병 발생과 경기 침체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전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소비 활동이 둔화되는 것이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 이는 현대사회가 고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바라바시(Barabási, 2002: 7)의 다음 설명이 어휘망을 통한 사건의 관계성 및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 "Today we increasingly recognize that nothing happens in isolation. Most events and phenomena are connected, caused by, and interacting with a huge number of other pieces of a complex universal puzzle."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신종플루}와 {메르스} 보도문을 대상으로 관련어를 분석하여, 전염병 보도 프레임의 구축하고, 전염병 보도의 관점을 통해 우리 사회의 관점과 사회 구성원의 주요 관심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종플루}와 {메르스}는 질병의 한 종류이지만, 전염성이 없는 {암}이나 일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독감}과는 출현 양상은 물론 관련어에서도 차이가 있다. {신종플루/ 메르스}는 빈도는 높지만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반면, {암}은 지속적으로, {독감}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로 {암} 관련어는 {치료/ 연구/ 수술/ 예방}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대응이 이루어지는 반면, {신종플루/ 메르스}는 {접종/ 예방}과 같이 제한된 형태의 대응이 주로 나타난다.

둘째, {신종플루/ 메르스} 보도문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 프레임과 전염병의 위험을 강조한 재난 프레임,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한 경제 위기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전염병은 질병이지만, 관련어를 살펴보면 ‘발생’보다는 ‘확산’에 초점을 두고 이에 따라 대응 역시 ‘치료’보다는 정부 주도의 ‘통제’ 및 ‘경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염병 발생에 대한 ‘비상상황’과 ‘불안감’ 관련어를 통해 비상사태를 강조하고, ‘전쟁’ 관련어를 통해 전염병 발생이 전쟁에 준할 만큼 위험하고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강조함으로써 전염병 시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신종플루} 보도문과 달리 {메르스} 보도문에서는 정치 및 경제 영역 관련어가 크게 증가한다. [위기]를 강조하는 관련어는 {신종플루/ 메르스}가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에, 정부 기관이나 정치인, 경제 상황이나 업종에 대한 관련어는 크게 늘어났다. 이와는 달리 교육 영역 관련어는 {메르스} 보도문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양상은 {신종플루}보다 {메르스} 당시에 정부 기관의 개입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경제 영역 관련어의 증

가는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과거보다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전염병의 극복은 실질적으로 경제 위기 해소와 경기 활성화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염병 발생은 다른 질병과는 달리 일회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다. 프레임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인지적 틀로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인지적 지름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일 혹은 사건에 대한 기대 및 예측 방향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염병 보도 프레임은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사건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과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 인지를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경제 위기 프레임과 {관광/ 여행/ 관광객} 관련어의 높은 빈도는, 현대사회의 복잡계(complex system)가 어떤 단계까지 확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사회가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주요하고 민감하게 인지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밝혀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범모 · 김홍규 (2011), “명사 빈도의 변화, 사회적 관심의 트렌드: 물결 21 코퍼스 [2000-2009]”, 『언어학』 61, (사)한국언어학회, pp. 3-38.
- 그레고리 베이트슨 지음, 박대식 옮김(2006), “놀이와 환상에 대한 이론”, 『마음의 생태학』, 책세상, pp. 299-321.
- 김일환 · 강범모 · 김홍규 (2012), “공기어를 이용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의 추이 분석-2000~2009년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1,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 175-202.
- 박건숙(2014), “시간에 따른 사건 전개 및 긴장 정도 추이 연구: KBS 뉴스의 {북한}을 중심으로”, 『언어과학』 21-3, 한국언어과학회, pp. 65-96.
- 박정운(2000), “Charles J. Fillmore: 틀의미론”, 『인지언어학』(이기동 편저), 한국문화사, pp. 63-82.
- 송경숙(2002), “한국어와 영어 인터넷 채팅에서의 프레임(frame) 분석”, 『텍스트언어학』 13, 텍스트언어학회, pp. 73-105.
- 신현숙 · 이지영(2000), “Wallace L. Chafe: 언어와 정신”, 『인지언어학』(이기동 편저), 한국문화사, pp. 11-34.
- 이상률 · 이준웅(2014), “프레임 경쟁에 따른 언론의 보도 전략”, 『한국언론학보』 58-3, 한국언론학회, pp. 378-407.

- Barabási, Albert-László(2002),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New York: Perseus Publishing.
- Bateson, Gregory(1972), A Theory of Play and Fantasy, Reprinted in *Steps to an Ecology of Mind*, 117-193. New York: Ballanantine Books.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pp. 51~58.
- Fillmore, C. J. (1975), An alternative to checklist theories of meaning. In: *Papers from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pp. 123-132.
- Fillmore, C. J. (1982), Frame semantics. I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Hanshin, pp. 111-138.
- Frake, Charles O.(1977), Plying Frames Can Be Dangerous: Some reflections on methodology in cognitive anthropology, *The Quarterly Newsletter of the Institute for Comparative Human Development* 1: 1-7.
- Ginsberg, Jeremy et al.(2009), Detecting influenza epidemics using search engine query data, *Nature* 457, pp. 1012-1014.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New York: Harper & Row.
- Grishman, Ralph(1986), *Computation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piec, Julian & Pedersen, Jan & Chen, Francine(1995), A Trainable Document Summarizer, Proc. of 18th ACM-SIGIR Conference, pp. 68-73.
- Lakoff, George and the Rockridge Institute(2006), *Thinking points: Communicating our American values and visio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Lakoff, George(2004),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White River Junction, Vt.: Chelsea Green.
- Luhn, H. P. (1958). The automatic creation of literature abstracts. *IBM Journal of Research Development* 2(2), pp. 159-165.
- Tannen, D. & Wallat, C. (1987). Interactive frames and knowledge schemas in interaction: Examples from a medical examination/ interview. In D. Tannen's (Ed.), *Framing in discour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54-76.
- Tannen, Deborah(1979), What's in a Frame? Surface Evidence for Underlying Expectations, *New Directions in Discourse Processing*, ed. by Roy Freedle, pp. 137-181. Norwood, NJ: Ablex.

박건숙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상명대학교 외래강사

전자 우편: pkeonsook@hanmail.net

원고 접수일: 2016. 04. 26.

원고 수정일: 2016. 06. 22.

게재 확정일: 2016. 06. 24.